

ISSUE '공간' 부활 프로젝트 지휘자

컬렉터 김창일

S

MAGAZINE

CULTURE/STYLE/PEOPLE

March 2-3, 2014, no.364, sunday.joongang.co.kr

I hope your are
 going well.
 I am doing spongers for
 me. thank for your gift.
 thank four come.
 I am very happy to know
 that your spollect me
 and will prayer to God to
 live long time. Also I am
 very happy to see miss
 together although I didn't see
 all my spongers



중일SUNDAY
 제364호 3월 2일-3일 값 1000원
 http://sunday.joongang.co.kr
 58
 9 771976 026400
 ISSN 1976-0264

THIS WEEK PEOPLE 춤인생 50주년 기념공연 국수호 디딤무용단장	06
ISSUE '공간' 사옥 인수해 미술관 여는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회장	08
PEOPLE 빈티지 주얼리 디자이너 케이트·클로에 리 자매	14
FOCUS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한국 패션의 미래를 찾다	16
PORTRAIT ESSAY 시인 신경림	20
COLUMN 스타일#: 이탈리아 새 총리를 주목하다	21
FOOD 정환정의 남녘 먹거리 (11) 통영 멧게	22
REVIEW & PREVIEW 안성수 & 정구호 'Two in Two'	24
BOOK 『대중가요 LP 가이드북- 음반으로 보는 대중가요의 역사』	26
SOUL-SEARCHING 박정태의 고전 속 명문장과 작가 (54) 『네 사람의 서명』과 아서 코넨 도일	28
GALLERY 줄리안 오피 전	29
CONTE 김상득의 패러디 파라다이스	30
PHOTO ESSAY 조용철 기자의 마음 풍경	31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회장



빈티지 주얼리 디자이너 케이트·클로에 리 자매



줄리안 오피 전

EDITOR'S LETTER

연아의 클린

어릴 적 피아노를 가르쳐주시던 선생님은 “연습은 하루에 세 번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요? 정말 세 번만 치면 돼요?”라고 묻는 제게 이렇게 덧붙이셨죠. “그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것을 한 번이라고 그래. 그렇게 세 번을 매일 하도록 하렴.”

그 ‘한 번’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그렇게 매일 ‘세 번’ 했으면 저도 지금쯤 글을 쓰는 대신 건반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요.

이번 소치 올림픽으로 공식 현역 활동을 마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선수 생활 하면서 쇼트와 프리 모두 클린(Clean)한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돼 만족스럽습니다.”

그가 말하는 ‘클린’에서 옛날의 그 ‘한 번’이, 그리고 다시 ‘단련’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쇳덩이를 불구덩이에 넣고 천 번 두드리는 것을 단(鍛), 만 번 두드리는 것을

련(鍊)이라고 한다죠. 일곱 살 초보 스케이팅 가스물넷의 ‘피겨 여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두드리고 또 두드렸을까요.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활짝 웃던 미소는 진인사(盡人事)한 자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금메달은) 더 간절한 사람이 받았겠죠”라는 의연함도 다 토해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노력에 경의를!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사상 최초라는 ‘올포디움(All Podium·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해 시상대에 오름)’ 기록 역시 그 ‘한 번’에서 시작됐음을 되새기면서.

정형모 문화에디터 hyung@joongang.co.kr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2014)

거리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아름다움

줄리안 오피(56)는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간결한 검정 테두리 안에 그려내지만 그 속에는 디테일이 기묘하게 꿈틀거린다. 인물의 캐릭터를 고스란히 뿜어내는 색감은 놀라울 정도다. “거리를 걷어가는 인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한다”는 그다. 이번 전시를 위해 그는 서울의 보행자 모습을 표현한 새로운 회화 연작을 선보였다.

두 남녀의 머리를 레진으로 만든 설치물과 그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함께 전시한 공간은 흥미롭다. 평면에 그린 인물의 초상을 입체로 쪽 뽑아낸 듯, 아니면 두상을 보고 초상화 그림을 그린 듯 평면과 입체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유쾌하다. 글정형모기자hyung@joongang.co.kr, 사진 국제갤러리

※ 테블릿PC 중앙SUNDAY APP에서 더 많은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줄리안 오피 전

2월 13일~3월 23일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문의 02-735-8449